

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 성료

공공연구기관 우수 특허기술 한자리에



중 소기업에게 특허경영 정보제공 등을 비롯,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,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게 이전시키는 자리가 마련됐다.

우리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에서 「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」을 개최했다.

특허청이 주최하고 우리회와 고려대학교가 공동 주관한 이번 페스티벌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설명회 및 상담회, 그리고 지식재산 컨퍼런스로 구성, 진행됐다.

기술이전설명회 및 상담회에서는 기술 및 사업화 전문가의 엄정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발된 공공연구기관의 우수 특허기술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, 특허기술 사업화에 따른 절차와 진행방식 등 실질적인 특허기술 이전에 대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.

설명회 및 상담회를 통해 이전받을 수 있는 기술은 지난 5월 특허기술이전박람회에 출품된 특허기술 중 분야별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로 선정된 55개의 특허기술과 35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1,166건의 특허기술 중 우수하다고 평가된 100개의 특허기술이며, 지난 21일에는 기계·금속·건설분야, 22일에는 전기·전자·정보통신분야, 23일에는 화학·생명공학분야를 중심으로 설명회 및 상담회가 진행됐다.

설명회에서는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보유

기술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, 별도로 마련된 개별 부스에서는 설명기술을 포함하여 동 행사에 참여한 모든 기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비롯, 구체적인 계약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해주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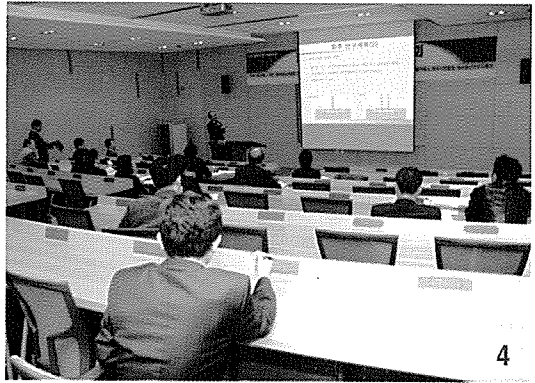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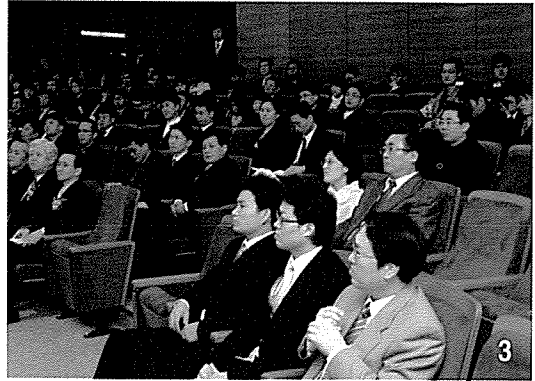
아울러 행사기간 중 진행된 지식재산 컨퍼런스에서는 기술수요자와 공급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별 세미나가 개최되었고, 특히 최근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관심사항인 특허경영전략 및 기술사업화전략 등이 주제로 선정되어 페스티벌에 참석한 중소기업은 관심기술에 대한 설명 및 상담, 그리고 최근의 특허경영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었다.

또한, 자금지원설명회와 함께 기술금융상담실도 운영되어,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실질적인 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.

이번 2006 특허유통 페스티벌은 공공연구기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최된 것인 만큼, 공공연구기관 관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된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.

설명회 및 상담회에 나오는 기술들에 대한 상세한 사업성평가 정보는 한국발명진흥회 IP-MART(www.ipmart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관련기사 12~ 14페이지 참조



사진설명 1, 2 : 전상우 특허청장의 개회사 장면 3 : 개회식에 참석한 관계자들 4 :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설명회 장면 5 : 기술이전 상담 장면 6 : 참가기술패널 관람 장면